

영어교육 55권 1호 2000년 봄

영어 뉴스 청해 지해 요소 연구*

차 경 환
(중앙대학교)

Cha, Kyung-Whan. (2000). A study of impediments in listening to English news broadcasts. *English Teaching*, 55(1), 201-225.

This research investigated factors in impeding the comprehension of English news broadcasts. Both a qualitative (think-aloud procedures) and a quantitative (listening comprehension tests) methods were utilized. The news samples to which subjects listened were selected from CD-Rom titles to represent the kind of English news that students might typically encounter in English radio broadcasts. The subjects were 43 fourth year college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think-aloud procedures in which students were interrupted during a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y and asked to indicate how they comprehended the news samples. The think-aloud study revealed that hindrance factors of their news listening are gaps in their knowledge of English vocabulary and phonology. However, the more crucial impediment was the listeners' deficiency in textual competence. Even though the second study did not confirmed the lack of textual competence, the findings of the first study indicated that Korean students have listening difficulties in longer pieces of news passages since they are used to shorter or sentence-level passages in listening activities.

1. 서론

일상 생활에서 영어 청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분류 할 수 있다: 일상 회화 청취, 강의 청취, 뉴스 청취, 오락 청취(노래, 영화 등). 그 중에서 일상회화 청취, 강의 청취에 관해서는 연구 논문과 학습 교재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뉴스 청해 지해 요소에 관한 연구나 영어 뉴스를 활용한 영어 청해 학습법

* 위의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에 관한 연구 및 효율적인 지도법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가 거의 없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수준의 영어 청취력 시간에 영어 뉴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요사이 국제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케이블과 위성 채널의 대중화 경향을 두고 볼 때 효율적인 영어 뉴스 청해 방법 개발을 위한 '영어 뉴스 청해 저해 요소'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뉴스의 어떤 요소 때문에 청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에게 적합한 영어 뉴스 청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영어 청취 자료로 영어 뉴스를 많이 활용하지만, 학습 방법으로는 단순한 단어 연습이나, 빈칸 채우기, 연음 현상 학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결과는 보다 체계적인 영어 뉴스 청해 지도법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영어 뉴스에 관한 배경 연구

1. 영어 뉴스의 특성과 청해 저해요인

학습자의 수준에 관계없이 영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교육 학습자료로 자연스럽고 진실된(authentic)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영어 뉴스는 영어 청취 자료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1. 뉴스는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자료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Katchen, 1994).
2. 뉴스는 원어민을 위해서 제작되었고 시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문화적인 요소를 제공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부여한다.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청해 교재로 활용하는 자료들은 외국인을 위해 제작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자료들로써 시사성 및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뉴스는 그런 부족한 면을 보충해 준다.
3. 뉴스는 보통 속도로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뉴스의 활용은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실제로 중급이상의 학습자에게 청해력 향상을 위한 뉴스 자료의 활용사례는 많다(Terrell, 1993).
4. 청취 집중력은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스는 다양한 주제를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청해 연습자료로 적합하다. Katchen(1994)도 모호한 청해 목표를 가진 긴 청취 학습보다는 구체적인 청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짧은 분량의 청취 자료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5. 뉴스 앵커는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을 구사한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의 문법은 정확하며, 교육받은 사람들의 어휘나 스타일을 구사한다.
6. 뉴스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어를 제공한다. 뉴스는 각계 각층 영어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제공하며, 아울러 비 영어권 영어 사용자들의 영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7. 텔레비전 뉴스는 화면 하단에 부수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처럼 청취 학습자료로 유용한 영어 뉴스는 몇 가지의 특징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즉, 신문 뉴스보다 짧고 간결한 표현을 쓰며, 회화체 영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어와 내용어가 강하게 발음되는 뉴스 특유의 리듬을 갖고 있다(이향정, 1999). 뉴스 담화 구조 전개 방식은 역 피라미드 형태로 첫 머리 부분(앵커)에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즉, 작문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인도문(lead), 뉴스 본문(리포터), 요약(앵커, 혹은 전문가의 견해), 결론(리포터)순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van Dijk가 제시한 뉴스 화역(register)의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van Dijk, 1983; Weissenrieder, 1993: 267-268).

News Story

A. Summary/Introduction[논평]

A.1. Headlines

A.2 Lead

B. Episode[팩락에서 사건에 관한 세부사항 소개]

B.1. Events

B.1.1 Previous information

B.1.2 Antecedents

B.1.3 Actual events

B.1.4 Explanation

B.2 Consequences/Reactions

C. Comments

그래서 뉴스 담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뉴스 이해에 중요하다(Larsen, 1983). 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짧은 문장이나 구로 구성된 뉴스의 첫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뉴스는 읽는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게 된다. 뉴스 청해는 일방적(one-way)인 전달과정이라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힘들고 아나운서가 거의 같은 톤으로 읽음으로 심리적인 피로감으로 인해 집

중력이 저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뉴스 청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끊어 읽는 패턴을 파악하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뉴스에서는 경제, 정치,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구어적 표현, 어휘 및 표현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어휘 이해 없이는 뉴스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축약 현상이나 등위접속사를 이용한 문장 연결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현장감과 신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을, 과거형보다는 현재형, 현재 진행형 및 현재 완료형을 많이 활용한다(안병규, 1997).

영어 청해 저해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요소, 말의 속도, 통사구조의 복잡성, 의미론적인 친숙성,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 구조에 바탕을 둔 상향식 청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 낱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융합현상(Sandhi-variation)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뉴스 청해에 주요한 장애 요소로 간주된다(안정섭, 1988; Henrichsen, 1984).

또한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청해 습관 역시 중급 이하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해 장애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cDonough & Shaw, 1993: 139).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역시 사전 의존적인 어휘력 중심의 독해 학습법에 익숙해 있고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숙어, 약자 등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정취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그런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약 1-1.5초 동안으로 볼 때, 미국 텔레비전의 뉴스 평균 속도는 188.5wpm(안수용, 1995)로 간주되기 때문에 잔상손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1.5초 동안에 못 이해하고 지나가는 단어는 최소 3.14에서 최대 4.71 단어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저해 요소가 한 문장에 두개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주제에 관한 내용적 문화적 친숙도는 청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기 때문에, 뉴스 청해에도 내용에 관한 배경지식이나 주제에 관한 친숙도는 효율적인 청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Chiang & Dunkel, 1992; Long, 1990; Mackenzie, 1997; Richards, 1983).

2. 국내·외 영어 뉴스 청해 연구 동향

국내 학자들이 연구한 영어 뉴스를 활용한 청취 학습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영어 학원에서 나온 청해 요령을 다룬 교재가 전부이고,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이나 저술은 거의 없다. 영어 방송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뉴스를 어떻게 들어야 효과적인가를 다룬 논문(안병규, 1997)과, 영어 뉴스가 갖는 일반적인 패턴을 소개한 논문(안정섭, 1991)이 대표적이데, 구체적인 영어 뉴스의 영역별 연구에 관한 논문은 드물다. 특히,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 뉴스 청해의 저해 요소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이 연구

한 방송 영어나 영어 뉴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개론적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형태의 논문이다. 외국에서도 뉴스 청해에 관한 논문이 많지 않다. 국제학술회의에서 영어 뉴스(CNN) 청해에 관해 발표한 발표문(Vann, 1996)과, 스페인어 뉴스 청해를 다룬 Weissenrieder(1993)의 논문과 워싱턴 영어 뉴스를 다룬 Katchen(1994)의 연구 정도이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영어 뉴스 청해 저해요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세 단계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J대학교 영어교육과 4학년 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세 가지의 영어뉴스를 청취하게 하고 전체 그리고 부분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검사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진단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영어뉴스 청해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졌다. 이와 함께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청해력 시험을 치르게 하여 본 연구를 위한 적절한 방향과 대상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 들어가서는 정성적(qualitative) 연구를 위해 토폴 청해력 시험에서 점수가 65퍼센타일에 속한 3명(여 2명, 남 1명)을 선택하여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정량적(quantitative) 연구는 정성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연구방법으로 학습자 28명의 뉴스 청해 저해 요소를 검사하였다.

1. 기초 연구

세 가지 뉴스(부록 1)를 청취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뉴스 청해 저해 요소를 순서대로 10가지씩 제시하게 하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해 요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해 저해 요소를 파악했다. 그리고 TOEFL 듣기 시험을 활용하여 사전 영어 청해 능력을 평가하여 상위 25%에 속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연구에 활용할 교재는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 반복 할 수 있는 S회사에서 나온 자료(AFKN뉴스를 CD-Rom에 저장한 프로그램)를 활용하였다. 피실험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뉴스 청해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휘 (빈도수: 39)
2. 속도 (36)
3. 연음 (33)

4. 배경지식 (전문용어) (33)
5. 발음차 (학습시의 발음과 실제 청음시의 차이) (24)
6. 고유명사 (19)
7. 문화적 배경 (18)
8. 집중력 (14)
9. 장문 듣기 (긴 문장의 청해시 장애) (10)
9. 문법 (10)
9. 관용구 (10)
12. 심리적 부담감 (9)
13. 강세 (8)
14. 축약 (7)
14. 잡음 (7)
16. 생략 (6)
16. 독해력 (직접적해력) (6)
18. 끊어 읽기 (3)
19. 강조어구, 정황파악, 모국어 간섭, 목소리 크기, 어순, 연습부족, 동음이의어 (각각 1)

2.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만으로는 학습자가 어떤 요인 때문에 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연구의 한계가 있어서 think-aloud에 근거한 정성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세 명을 택하여 구체적인 영어뉴스 청해의 저해 요소를 알아보았다. 각 학습자들은 전체 뉴스 청해 후 자신의 청해 과정을 진단하고 연구자와 뉴스 청해 저해요인을 토론하였다(뉴스 전문은 부록 1에 수록됨). 그리고 나서 문장 단위로 청취를 한 후 다시 자신의 청해 과정을 진단하고 연구자와 토론을 가졌다. 각 학습자의 자기 진단 및 토론은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참여자는 모두 대학 4학년생으로서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임용고사의 전공시험 과목인 영어 교수법, 이론언어학 등을 공부하고 있고 일반영어나 2차 인터뷰시험 준비와 장차 영어선생님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어를 학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해나 문법과는 달리 세 학생 모두 청해력 향상을 위한 영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못했는데, 그 일차적인 이유는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사에 관련된 청취력 시험의 비중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각 참여자의 기존 영어시험 성적 및 지금까지의 영어학습 방법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어 뉴스 청해 저해요인들을 요약한 것이다.

참자 A: 학교나 학원 특강을 틈틈이 들으면서 청해 연습을 하고 있었고 영어 청해가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다. 영어능력 시험으로는 서울대 어학연구소가 개발한 TEPS를 보았는데 2급 플러스 성적을 받았다. 뉴스 청취를 이용해 학습을 하면 시사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으며, 구하기도 쉽고 흥미 있는 뉴스를 찾아서 학습하면 훌륭한 청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뉴스 청해 저해요인으로는 빠른 전달속도와 까다로운 어휘, 억양이나 연음을 지적했으며 뉴스의 내용도 청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전체적으로는 언어의 능력(특히 문법적인 능력)이 비언어적인 능력(예를 들면 배경지식)보다 더 중요한 청해 요인으로 진단했다.

참자 B: 청해 학습에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틈나는 대로 영어뉴스 등을 들으며 청해력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어능력 시험으로 토플을 보았고 받은 성적은 550점이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청해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진단하였다. 뉴스 청해 학습으로 문장 단위로 받아쓰기 연습보다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청해 저해요인은 문맥을 이해할 때 하나의 정보 또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음 내용을 자주 놓치는 청해 습관을 지적하였다. 문법적인 능력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해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참여자 A와는 달리, 선행지식이나 문화/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대한 이해력이 문법적인 능력보다 뉴스 청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하였다.

참자 C: 지난해 말 학원에서 토플 청해 공부를 한 적이 있고, 학습 방법은 주로 문장별로 받아쓰기를 하고 따라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청해력 향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토플 청해 시험에서는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청해 시험 점수는 여전히 낮은 편이며 한 문장 단위 이상의 청해 분량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올해 토플 점수 530점을 받은 적이 있고 청해가 영어능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청해력 학습을 하고 있다. 문화, 사회언어학적 지식이 뉴스 청해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연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 청해의 걸림돌로 진단하였다.

3. 정량적 연구

1) 연구대상

두 번째 연구의 대상자는 1999년 가을학기에 개설된 영어평가 과목을 수강한 서

을 J대학교 영어교육과 대학생 28명이었다. 평균나이는 23세이고 대부분이 영어권 국가에서의 학업경험이 없었으며 뉴스를 이용한 영어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명으로 나타났다.

2) 연구자료 및 절차

본 연구방법은 앞서 언급한 정성적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제작되었고 앞서 사용된 세 가지 뉴스(부록 1)를 다시 이용했다. 연구대상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고 한 집단 (a)는 전체 뉴스 단위로 반복 청취를 하고 다른 한 집단 (b)는 같은 뉴스를 문장 단위로 반복 청취를 했다. 앞서 언급한 정성적 연구에서 청취 입력(input)의 양이나 담화 능력이 의미 있는 청해 저해요인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적 연구로 연결한 것이다. 무작위로 이루어진 두 집단의 청해 능력이 유사한지는 각 집단 안에 학생들의 청해력 부분 자기진단 점수와 토플점수로 확인해 보았다. 집단 a가 각각 52.31, 510.77이었고 집단 b가 각각 52.00, 508점을 나타내어 무작위로 인한 유사성을 확인했다.

연구대상자들이 치른 시험은 두 가지였는데, 처음에는 뉴스의 제목이나 내용 전개에 따른 간단한 요약 시험 등이 주어졌고, 재 청취의 기회를 가진 후에는 단답형 시험이 주어졌다. 전체적으로 Shohamy와 Inbar(1991)가 제시한 포괄적(global), 국소적(local), 세부적(trivial)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 문항은 숫자, 연도, 사람이름 등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를 찾으도록 하고 있고, 국소적 문항은 문맥이나 전체 주제에 연관성이 있는 문장 안에서 명사, 동사 등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며, 포괄적 문항은 전체적인 의미파악에 중점을 둔 것인데, 예를 들면 뉴스의 제목이나 전개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 세 가지 문항유형에 대한 시험결과를 정량적 실험연구에서 종속변수로 두었다. 세 종속변수와 하나의 매개변수를 둔 본 연구는 다변량분산분석 통계방법을 따를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종속변수를 각각 떼어서 공분산분석 통계를 제공하였다.

어학실습실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36개의 청취 문제는 녹음으로 제공되었고 답안은 한국어나 영어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쓰기 능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연구자는 수험자들이 한번 지나간 문항에 다시 돌아 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후반부에 국소적 문항이나 세부적 문항이 포괄적 문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험자들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 받고 자유롭게 청취 중에 들은 내용을 필기할 수 있었다. 부록 2에는 전체 36개의 문항이 제공되어 있으며 채점에서는 부분정답을 인정하는 0에서 3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정성적 연구 결과 및 논의

세 학습자는 우선 선정된 세 뉴스를 하나씩 청취하였다. 하나의 뉴스를 듣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칭해했는지 자기 진단을 내리고 연구자와 토론을 하였고, 청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몇 번의 청취 기회를 더 제공하고 다시 토론을 하였으며 문장별 로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다음은 각 뉴스별로 연구자에 의해 발견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1) 뉴스 1: Smoking Ban on All Flights

아래는 첫 번째 뉴스의 대본인데 세 가지 크기로 정리했다. 가장 큰 글자(16 font)는 청자들이 첫 번째 전체 청취에서 비교적 쉽게 칭해한 정보이며, 중간 크기(12 font)는 전체 또는 문장별 반복 청취의 기회로 이해가 가능했던 정보이고, 가장 작은 크기(8 font)는 반복 청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정보이다.

- (1) More than two-thirds (2/3) of business travellers in a recent survey favored a smoking ban on all flights.
- (2) Tha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3) Sixty-eight percent(68%) said they favored a complete ban on smoking.
- (4) North Americans were strongly in favor of such a ban.
- (5) Since November of 1994, smoking has been banned on flights between three countrie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 (6)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aid July first of next year is the deadline for banning smoking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세 학습자 모두 상향적 처리(bottom-up)에 철저하게 의존하며 핵심 단어 중심으로 뉴스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뉴스의 경우 학습자들이 청해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많지 않았으며 일상적으로 익숙한 smoking ban, international flights라는 핵심단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어 심리적으로 청해에 자신감을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smoking ban과 international flights란 정보를 들은 후 다른 새로운 정보와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의 몇 %가 찬성을 했으며, 언제 금연조치가 어디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청해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내용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핵심 단어들을 확인해 가는 인지방법을 보여주었다.

두세 번의 전체 청취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학습자 모두 익숙한 주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의 전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우선 어휘와 연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예를 들면 two-thirds(2/3)를 계속적인 청해 기회에도 불구하고, 세 학습자 모두 이해를 못하거나 twenty three(23)로 이해를 해서 오히려 뒤에 나오는 68%와 혼란을 느낀 경우, November, Aviation 등의 단어가 주위의 단어와 연음이 되면서 이해를 못한 경우, 그리고 July first를 이해를 못하거나 fourth 등으로 이해한 경우이다. 성공적인 상향식 처리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원어민의 발음이나 연음 구성, 어휘의 이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놓쳤으며 표 1은 세 학습자가 뉴스 1을 청제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세 학습자가 뉴스 1에서 청제한 정보 요약

	1차 전체 청취에서 청제한 정보	2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3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청자 A	국제선에서의 금연: 복미: 어떤 기간	조사에서 18%가 반대: 미국, 호주, 캐나다: 내년	7월 4일까지 전면 금지
청자 B	국제선에서의 금연 확산: 60%가 금연에 찬성: 어떤 나라: 7월	7월은 시민단체에서 나온 기간: 반대 %를 68로 수정	추가 정보 없음
청자 C	기내에서 금연: 국제선: 몇 %	미국, 캐나다, 호주가 함께 흡연금지를 협상: 어떤 기간: 선호한다는 내용	추가 정보 없음

특별히 청자 A와 C의 경우는 문장별로 청취하며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학습에 익숙하여 전체 내용전개 이해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학습자 모두 청해 중에 많은 내용을 청해했다고 하지만 당장 전체 청취가 끝난 후에는 내용구성이나 전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담화적 능력(textual competence)도 부족하지만 한 문장 단위 이상으로 청해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효과적인 청

해 방법(strategic competence)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파악되었다.

다음은 문장 단위로 뉴스 1을 청취할 기회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의 문법적인 능력과 구체적인 인지과정을 밝혀보고자 반복 청취의 기회를 역시 제공하였다. 반복이 될 때마다 학습자들과 어떻게 무엇을 청해하였는지 토론을 하였는데 아래는 결과에 대한 요약이다.

문장 (1): [More than two-thirds(2/3) of business travellers in a recent survey favored a smoking ban on all flights.]

smoking ban과 all flights를 비교적 명확하게 들었으며 다음으로 more than, survey 등을 청해했지만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제외한 정보는 몇 번의 반복 청취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지 못했다. 특히 two-thirds(2/3)를 제대로 이해한 학습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business traveller, survey, favored 등을 모두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토론 결과 two-thirds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다음 정보를 들지 못하고 전체 청취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장 (2): [Tha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세 학습자 모두 according to와 항공운송 association이란 정보를 무난히 찾았으며 대부분이 짧은 문장이라 집중이 용이했다.

문장 (3): [Sixty eight percent (68%) said they favored a complete ban on smoking.]

세 학습자 모두 68% 정도가 금연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파악했으며, B는 3차 청취에 걸쳐서야 69%라는 잘못된 수치를 68로 바꾸었다. 반복적인 정보라 내용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장 (4): [North Americans were most strongly in favor of such a ban.]

반복적인 정보라 성공적으로 모두 청해했다.

문장 (5): [Since November of 1994, smoking has been banned on flights between three countrie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B를 제외한 두 학습자는 반복되는 청취 기회에도 불구하고 November of 1994라는 정보를 제대로 청해할 못했다. C의 경우는 2월로, A는 member로 청해했다. A는 날짜를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청해를 하였지만 C는 has been banned란 문장형태가 익숙하지 못해 전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C는 복문의 구조일 때 일반적으로

청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영어능력이 높지 않은 학습자일수록 원어문의 발음 스타일, 연음과 같은 문법적인 요인이 성공적인 청해에 커다란 걸림돌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장 (6):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aid July first of next year is the deadline for banning smoking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학습자 모두 반복적인 청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을 우선 청해하지 못했고, July first of next year 역시 청해하지 못했다. C의 경우는 너무 문장이 길어 청해가 어렵다고 하면서, 7월이라는 정보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문법적인 요인 말고도 심리적인 요인 또는 청해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뉴스 2: NATO in Bosnia

아래는 두 번째 뉴스의 대본이며 위의 첫 번째 뉴스 청해 결과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된 청해 정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 다른 글자의 크기로 정리하였다.

- (1) The US and its European all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on more NATO air strikes and greater military involvement in Bosnia, as we hear from diplomatic correspondent Barry Schwide.
- (2) "They had the NATO air strikes, but they were pretty much stopped after the Serbs took hundreds of UN peacekeepers hostage.
- (3) And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opposition among the allies to taking on the Serbs.
- (4) The British, for instance, are very reluctant. They say the US NATO shouldn't, uh, shouldn't become a belligerent in that war."

(5) More UN peacekeepers are becoming hostages in Bosnia.

(6) Serbs are threatening to use them as human shields in some safe zones.

세 학습자 모두 청취한 내용 중 가장 어렵다고 인정한 뉴스다. 세 학습자 모두가 반복적인 청취 기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배경지식 부족으로 전체적인 내용 전개에 관해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뉴스 1과는 달리 핵심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관련된 유추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뉴스에 비교적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일부 정보들을 청취 한다면 그 정보를 기억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뉴스에서는 금연과 국제선이란 정보가 반복되어 문맥의 뜻을 추적해 나갈 여유가 있었지만 이번 뉴스에서는 US, NATO, Bosnia, hostage 등의 핵심 단어로는 문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학습자들은 진술했다. 높지 않은 영어능력을 지닌 학습자가 상향식 처리과정에 의존해 핵심 단어를 이용하여 문맥을 짐작해 나가는 방법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뉴스 청해 자료였다.

청자 A의 경우는 전체 청취에서 인질을 잡아두고 항공사 파업을 한다. 또는 나토가 보스니아에서 인질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뉴스의 내용을 전혀 엉뚱하게 추측했다. 청자 B의 경우도 평화군 내에서의 사소한 분쟁이라고 추론을 하면서 영국과 인질 등이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C의 경우는 몇몇 단어들로 들릴 뿐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에 대해 전혀 청해를 하지 못했다. 학습자 모두 보스니아 내전과 NATO의 기사는 신문지상 등을 통해 익숙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상향식 처리과정을 통한 내용 이해에는 실패했다.

어휘력 부족이 하나의 청해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청자 A는 첫 문장에 air strike를 파업으로 청해하여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peacekeeper, human shield는 학습자들이 청해 과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어휘였으며, Serbs와 belligerent는 학습자들이 전혀 추론해내지 못하였다. 연음이나 빠른 전달속도로 인해 학습자들이 청해하지 못한 내용으로는 allies trying to reach a consensus, greater military involvement, hundreds of UN peacekeepers, among the allies to taking on the Serbs, as human shields in safe zones 등인데 청자 A와 C는 원어민의 발음특성(연음 포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두 번째 뉴스의 청해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청해를 수행해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였다. B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만 강제로 발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청해 과정에서 핵심 단어와 주변 단어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알아들은 내용들에서 심리적으로 묶여버리는 청해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하였다.

전체 뉴스의 구성 및 내용 전개도 촘촘한 편이어서 담화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뉴스 자료였는데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은 후반부 내용으로 전개되는 '동맹국 사이에 반대 의견과 그 예로서의 영국의 경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반복 청취로 전반부의 내용을 대충 이해한 청자 B의 경우도 후반부의 내용 연결에는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연음이나 어휘가 학습자의 청해 저해요인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담화적 능력 부족이 뉴스 청해의 큰 저해요인임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었다. 표 2에서 세 학습자가 뉴스 2를 청제한 정보를 요약하였다.

표 2
세 학습자가 뉴스 2에서 청제한 정보 요약

	1차 전체 청취에서 청제한 정보	2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3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청자 A	air strike, airline, NATO, 인질, 보스니아, 영국, 외교 (정리는 되지 않음)	NATO가 보스니아에서 인질을 잡고 있는 것을 영국이 반대한다.	추가 정보 없음
청자 B	평화군 안에서의 사소한 분쟁: 영국: 보스니아	인질: NATO군의 공격이 강화해야 한다	추가 정보 없음
청자 C	외교, serve	보스니아: 영국: 외교	추가 정보 없음

다음은 문장 단위의 청해 결과이다. 주목할 점은 청자 B가 전체 청취에서 내용전개의 실마리를 전혀 풀지도 못하였는데 문장별로 청해할 때 성공적으로 그 내용들을 파악한 것이었다. B도 뉴스의 전달 속도보다는 전달의 양이 저해요인으로 분석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청해 능력을 갖춘 학습자에게는 연음이나 어휘, 전달 속도보다는 오히려 기억력이나 담화 능력이 더욱 중요한 청해 저해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문장 (1): [The US and its European all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on more NATO air strikes and greater military involvement in Bosnia, as we hear from diplomatic correspondent Barry Schwide.]

청자 B는 미국이 보스니아에 좀 더 강한 공습을 하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해하였다. 그러나 청자 C는 보스니아와 나토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air strike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allies란 단어를 제대로 청해하지 못했다. Barry Schwide에 따르면 이란 내용을 들은 A는 많은 단어를 청취했지만 결정적으로 정보들을 연결시켜내지 못해서 단어 중심의 청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C의 경우는 사람이름과 유럽이란 단어만 들었을 뿐 전혀 청해하지 못했다. 학습자 모두 들리지 않은 단어만 나오면 멍청하는 버릇 때문에 다음 내용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반복했다.

문장 (2)와 (3): [They had the NATO air strikes, but they were pretty much stopped after the Serbs took hundreds of UN peacekeepers hostage. And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opposition among the allies to taking on the Serbs.]

청자 B는 Serbs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난하게 의미파악을 했고, A와 C는 반복 청취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성공적으로 정해하지 못하였다. A는 공중폭격의 반대에 대한 내용은 짐작은 하고 있지만 확신은 하지 못하였고, C는 stop이나 hostage 등의 단어만 기억할 뿐이었다.

문장 (4): [The British, for instance, are very reluctant. They say the US NATO shouldn't, uh, shouldn't become a belligerent in that war.]

청자 B가 담화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문장이었다. 앞 문장에서 동맹국 사이에 반대의 내용이 있었고 영국이란 예가 있다는 것을 들은 B는 영국이 다른 또는 원활한 network를 가져야 한다는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요약을 하였다. 연음이나 어휘 등 문법적인 능력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은 B가 문장 전체의 이해부족을 보여준 청해 결과였다. A와 C는 여전히 청해에 큰 어려움을 보였는데, should 인지 shouldn't 인지도 확신이 없었다고 하였다.

문장 (5): [More UN peacekeepers are becoming hostages in Bosnia.]

청자 B를 제외하고는 두 학습자는 전체 내용이나 청해한 구체적으로 단어를 제시하지 못했다.

문장 (6): [Serbs are threatening to use them as human shields in some safe zones.]

청자 A와 C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으며 특히 C는 NATO의 발음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원어인 발음 이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B는 2차 청취에서 전체 내용을 이해를 했지만 문장 5와 6을 동시에 들려주었을 때 문장 6을 듣느라고 문장 5를 이해했었는데도 두 문장 다 돌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전달의 양이나 기억력 요인이 분명 뉴스 청해장애가 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3) 뉴스 3: Susan Smith's Case

아래는 세 번째 뉴스의 대본이며 위의 두 뉴스의 청취 결과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된 청해 정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 다른 글자의 크기로 정리하였다.

- (1) Tears filled Susan Smith's eyes during opening statements in her trial today.
- (2) A prosecutor said, Smith quote "looked this country in the eye and lied about killing her two sons saying they had become obstacles to a love affair."
- (3) The defense lawyer for Smith said that his case would be based on her mental state.
- (4) Today's proceedings were cut short by a telephoned bomb threat.
- (5) The courthouse in Union, South Carolina was evacuated briefly, but no bomb was found. Court will resume tomorrow.

세 학습자 모두 생소한 미국의 법정 뉴스를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청해하였다.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trial, lawyer, court 그리고 killing two sons만으로 전체 내용을 짐작했다. 하지만 청자 B와 C는 엄마가 왜 두 아들을 죽였는지 알지 못했고 후반부에 전개되는 폭발물 소식이 전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핵심 단어로 상황설정을 하여 대강의 내용만 파악했을 뿐 학습자들이 내용 전개 이해에 필요한 담화 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 청취 자료였다. C의 경우는 연음이 많아서 많은 내용을 놓친 것으로 진단하였고, A와 C는 telephoned bomb threat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래 표 3에서 세 학습자가 청해한 정보를 요약했다.

표 3
세 학습자의 뉴스 3에서의 청해 정보 요약

	1차 전체 청취에서 청해한 정보	2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3차 전체 청취에서 추가한 정보
청자 A	법정: 두 아들을 살해한 엄마: love affair, telephoned bomb	엄마의 정신적인 문제	추가 정보 없음
청자 B	법정에서 두 아들을 죽인 엄마가 변호사 말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 폭발하겠다는 내용, 그러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	추가 정보 없음
청자 C	두 아들 살인, 변호사	telephoned bomb	추가 정보 없음

다음은 문장 단위에서의 청해 결과다. 첫 번째 뉴스 청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뉴스 전달 속도, 어휘, 발음 등 대체로 문법적인 능력의 부족이 청자 A와 C의 경우 청해에 큰 걸림돌이었고, 첫 번째 뉴스에 비해서는, 초반에 제공된 정보가 뉴스 끝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내용(bomb threat)으로 전개되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진단되었다.

문장 (1): [Tears filled Susan Smith's eyes during opening statements in her trial today.]

본 뉴스에서 가장 어려운 청취 문장으로 판단된다. 청자 B는 1차 청취에서 사람 이름인 Susan Smith를 suicide로 이해했고 3차에 걸친 반복 청취에도 문장을 해석해 내지 못했다. 청자 C의 경우는 사람 이름을 짐작했지만 그 외에는 trial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청해해 내지 못했다.

문장 (2): [A prosecutor said, Smith quote "looked this country in the eye and lied about killing her two sons saying they had become obstacles to a love affair."]

청자 B와 C는 살인사건의 동기가 된 love affair를 청해해 내지 못했다. 세 학습자 모두 문장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killing two sons 이후 등장하는 they had become obstacles to a love affair란 부분의 연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장의 형태가 복잡한 것이 청해의 저해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문장 (3): [The defense lawyer for Smith said that his case would be based on her mental state.]

청자 A와 B는 이해를 하였지만 C의 경우는 변호사가 나오는 앞부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 C는 세 뉴스를 청취하면서 수동형태의 문장을 공통적으로 전혀 청해하지 못했다.

문장(4): [Today's proceedings were cut short by a telephoned bomb threat.]

마지막 부분의 telephoned bomb threat는 세 학생 모두 청해를 했지만 앞부분에 proceedings were cut short by란 부분은 모두 청해하지 못했다. 더구나 문장별로 청취를 해 가며 앞부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omb threat이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지 못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담화 능력이 뉴스 청해의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었다.

문장 5- [The courthouse in Union, South Carolina was evacuated briefly, but no bomb was found. Court will resume tomorrow.]

청자 A와 C는 evacuated란 단어를 청해하지 못했으며, 전체 문장들의 내용을 요약하지 못했고, B는 반복 청취로 이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다. 앞서서도 발견되었지만 복수의 문장들이 제공되었을 때 내용을 짐작하여 요약하는 능력이 청자 A와 C는 크게 부족하였다.

결론적으로 세 학생 모두 오디오로 전달되는 AP 뉴스 청해를 상향식 처리 과정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영어 능력이 낮은 학습자는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원어민의 연음이나, 발음체계, 어휘력 부족이 가장 큰 청해 저해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비교적 단어나 문장 단위에서 원어민의 발음을 효과적으로 청해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장 간의 연결이나 전체 내용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담화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상황설정에 도움을 주는 핵심 단어가 뉴스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의 분포 상태가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의 청해 저해요인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요인으로 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후후의 연구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들이 단어 또는 문장 단위로 청해 연습을 해 온 것이 실제 청해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학습자는 자신에 맞는 책략적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복수의 문장들을 청취하며 그 구성이나 전개를 인지하는 연습이 필요하였다. 몇몇 핵심 단어에 의존하는 청해 전략, 내용보다는 소리에 묶여 있는 청해 인지과정, 내용을 앞서가지 못하고 청해 못한 단어에 계속 끌려 다니는 상향식 청해 방법을 이용해서는 뉴스 청해력 향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정량적 연구 결과 및 논의

우선 포괄적, 극소적, 세부적 문항유형에 집단 A(전체뉴스 단위로 청해)와 집단 B(문장 단위로 청해)가 각각 어떤 청해 결과를 보였는지 알아보았다. 두 집단의 청해 시험 결과의 평균값, 표준편차, 그리고 두 집단의 청해능력 차이를 F 값과 그 값의 통계적인 유의도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4
문항유형에 따른 각 집단의 청해 능력의 평균(표준편차), 통계적인 유의도

문항유형	집단 A 평균 (표준편차)	집단 B 평균 (표준편차)	F 값	확률
포괄적	8.00 (6.27)	11.13 (7.21)	1.48	.23
극소적	16.15 (12.19)	17.93 (9.94)	.18	.67
세부적	9.31 (5.11)	9.80 (5.32)	.06	.81

표 4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문항 유형에 대해 뉴스 청취 입력의 정도를 달리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뉴스 내용 단위로 청취한 집단의 청해 결과는 모든 문항유형에서 문장 단위로 청취한 집단의 청해 결과와 통계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장 단위로 청취한 집단 B의 평균값이 모든 문항 유형에 대해 집단 A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할 뿐 분명 청해 능력에 영향이 부분적으로나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낸 포괄적 문항(.23)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값이 비교적 큰 차이(8.00, 11.13)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MANOVA 분석결과

Statistics	Value	F	df	Pr > F
Wilks' Lamda	.92	.68	3	.58
Pillai's Trace	.08	.68	3	.58
Hotelling-Lawley Trace	.09	.68	3	.58
Roy's Greatest Root	.09	.68	3	.58

표 5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 문항 유형을 종속변수로 두고 매개변수를 뉴스 청취 입력의 차이점에 근거한 두 집단으로 두었을 때 F값과 그 값의 통계적인 유의도이다. SAS 통계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네 가지 다변량분산분석 통계지수를 추출하였는데, 문항 유형 세 가지 모두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네 가지 통계지수 모두가 두 집단의 뉴스 청해 능력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서 성급하게 매개변수, 즉 뉴스 청취 입력의 전달과정이 학생들의 청해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실험 대상 추출과정이나 문항의 난이도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각각 13명, 15명의 독립 집단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표본 수이므로 다변량분산분석을 하기에 어떤 결림돌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진단이나 TOEFL 성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영어 능숙도를 가진 두 집단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높은 난이도의 뉴스 청해 시험문항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6에서는 세 가지 다른 뉴스의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세 문항유형에 대해 어떤 시험결과를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와 5에서는 세 가지 뉴스의 청해 결과를 합친 결과이며 표 6은 각각의 뉴스내용에 따라 그리고 문항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어떤 청해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6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뉴스(국제기내 금연 이슈)의 포괄적 문항유형에서 두 집단은 다른 방법의 뉴스 전달 정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점이다. 기내 금연 뉴스를 이해하

는데 있어 문장 단위로 그리고 전체뉴스 단위로 청취 입력이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뉴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청해 능력이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뉴스(보스니아 내전)와 세 번째 뉴스(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포괄적 문항유형에서 두 집단은 청취입력 제공정도에 따라 아무런 유의성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른 문항유형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표 6
세 뉴스 안에서 문항유형에 따른 청해 결과의 평균(표준편차), 통계적인 유의도

뉴스/ 문항유형	집단 A 평균 (표준편차)	집단 B 평균 (표준편차)	F 값	확률
News 1				
Global	3.15 (2.48)	4.87 (2.10)	3.92	.05*
Local	4.62 (2.90)	5.47 (3.56)	.47	.50
Trivial	3.92 (1.89)	4.20 (2.68)	.10	.76
News 2				
Global	1.85 (1.91)	2.33 (2.58)	.31	.58
Local	3.15 (5.29)	2.87 (3.40)	.03	.86
Trivial	1.85 (2.23)	1.73 (1.95)	.02	.88
News 3				
Global	3.00 (3.06)	3.93 (3.33)	.59	.50
Local	8.39 (5.89)	9.60 (4.95)	.35	.56
Trivial	3.54 (2.90)	3.87 (2.42)	.11	.75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번째 뉴스 청해의 결과가 다른 두 뉴스의 청해 결과와 판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표 4나 5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 6에서도 집단 B가 집단 A보다 대부분의 경우 평균값이 높는데 두 번째 뉴스의 국소적 그리고 세부적 문항유형에서는 집단 A가 집단 B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의 청해 결과는 두 집단 모두 각 문항유형에서 현저히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는데, 비교적 청해하기 어려운 두 번째 뉴스와 관련된 문항들이 평균값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밝혀내는데 혼란을 초래했는지, 또 다른 변수로 인해서 문장 단위로 청해한 학생들이 청해의 어려움을 보였는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두 번째 뉴스의 내용보다는 구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청해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신문지상에서 자주 다루어진 보스니아 내전에 대한 내용이나 전투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낯선 것들이 아니며, 오히려 뉴스 상황설정에 도움

을 주어야 하는 핵심정보들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지 않았고 뉴스 전체에 걸쳐 그러한 핵심정보들이 확인되지 않은 구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청해에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문장 단위로 청취를 한 집단이 국소적 그리고 세부적 문항유형에서 어떻게 더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본 연구만으론 만족스런 대담을 하기 어렵다.

V. 결론 및 제언

첫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자의 청해 저해요인으로 자주 지적되어 온 어휘력 부족, 원어민의 발음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뉴스 청해의 저해요인임을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밝혀냈다. 하지만 문장 간의 연결이나 전체 내용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담화적인 능력이 문장 단위에서의 어휘나 발음체계 이해보다 더욱 두드러진 저해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면, 청자 B가 문장 단위에서 원어민의 발음이나 전체 내용을 무난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이 청취 입력으로 제공되었을 때는 상황설정이나 문맥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두 번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저해요인으로 인식되는 연음, 어휘, 배경지식을 변수로 두지 않고 문장 단위 이상의 청취 입력을 이해할 수 있는 담화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의 제공정도를 대개변수로 두고 양적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집단이 각각 포괄적, 국소적, 세부적 청취 문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려 한 실험에서 뉴스 1의 포괄적 문항유형에서의 문항반응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통계적인 유의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영어 청해 능력이 예상보다 낮았고 이와 관련되어 많은 청취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서 효과적으로 집단의 청해 차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뉴스 1의 포괄적 문항유형의 경우 외에도,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아니지만 문장 단위로 청취를 한 집단 B가 집단 A보다 대부분의 문항유형/뉴스 종류에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 뉴스입력의 제공정도가 뉴스 청해 능력의 유의적인 차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마리는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문장 단위 이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청해해야 하는 담화능력이 부분적으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청취 실험 환경을 만들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연구에서 고려가 되지 않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어휘나 연음, 그리고 비언어학적인 요인인 배경지식 등이 어떻게 뉴스 청취에서의 담화능력과 상호관계가 있는지도 추후에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학습자들은 단어 또는 문장 단위로 청해 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 뉴스 청취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복수의 문장 단위로 청취를 하고 뉴스 전체의 구성이나 전개를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몇몇 핵심단어에 의존하여 내용보다는 소리에 묶여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듣지 못한 단어 때문에 전체 뉴스의 흐름을 놓치는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담화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청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청해 습관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담화능력과 관련된 여러 영어듣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안병규. (1997). 방송영어의 효과적인 청취. *바른영어교육*, 8, May, 39-43.
- 안수웅. (1995). 영어 청해력 저해요인의 정보처리 이론적 분석. *영어교육*, 50(2), 181-208.
- 안정섭. (1988). Sandhi-variation이 한국학생들의 구어영어 청취에 미치는 영향. *중대논문집*, 31, 77-94.
- 안정섭. (1991). 한국대학생들의 영어TV 뉴스담화 청취에 있어서 화제의 역할. *중대논문집*, 34, 127-165.
- 이향정. (1999). News 청취를 하는 요령.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학기말 논문.
- Chiang, C. S., & Dunkel, P. (1992). The effect of speech modification, prior knowledge, and listening proficiency on EFL lecture learning. *TESOL Quarterly*, 26, 345-374.
- Henrichsen, L. E. (1984). Sandhi-variation: A filter of input for learners of ESL. *Language Learning*, 34(3), 103-126.
- Katchen, J. (1994). *Learning to listen to authentic English from satellite TV*.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hai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14th, Bangkok, Thailand, January 13-15.)
- Larsen, S. F. (1983). Test processing and knowledge up-dating in memory for radio news. *Discourse Process*, 6, 21-38.
- Lonergan, J. (1995). Using authentic broadcast materials. *Video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80-90.
- Long, D. R. (1990). What you don't know can't help you.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65-80.

- Mackenzie, A. (1997). Using CNN news video in the EFL Classroom. *The Internet TESL Journal*, 3(2). <<http://www.aitech.ac.jp/~iteslj/>>
- McDonough, J., & Shaw, C. (199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Cambridge, MA: Blackwell.
- Morrison, B. (1989). Using news broadcasts for authentic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43(1), 14-18.
- O'Malley, J. M., Chamot, A. U., & Kupper, L. (198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0(4), 418-437.
- Poon, A. (1992). *Action Research: A study on using TV news to improve listening proficiency*. (Hong Kong City Polytechnic, Dept of English) ED375607 FL021835.
-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2), 219-239.
- Shohamy, E., & Inbar, O. (1991). Validation of listening comprehension tests: the effect of text and question type. *Language Testing*, 8, 23-40.
- Terrell, T. D. (1993). Comprehension input for intermediate foreign language students via video. *IALL Journal of Learning Technologies*, 26(2), 17-23.
- van Dijk, T. A. (1983). Discourse analysis: I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the structure of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33, 20-43.
- Vann, S. (1996). *Using CNN newsroom in advanced listening class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Chicago, IL, March 26-30.)
- Weissenrieder, M. (1993). Listening to the news in Spanish. In J. Oller Jr. (Ed.), *Methods that works* (2nd ed.) (pp. 267-271). Boston,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부록 1

실험연구에 사용된 뉴스 전문

뉴스 1:

- More than two thirds(2/3) of business travellers in a recent survey favored a smoking ban on all flights.
- Tha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Sixty eight percent(68%) said they favored a complete ban on smoking.

- North Americans were most strongly in favor of such a ban.
- Since November of 1994, smoking has been banned on flights between three countrie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said July first of next year is the deadline for banning smoking on all international flights.

뉴스 2:

- The US and its European all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on more NATO air strikes and greater military involvement in Bosnia, as we hear from diplomatic correspondent Barry Schwide.
- "They had the NATO air strikes, but they were pretty much stopped after the Serbs took hundreds of UN peacekeepers hostage.
- And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opposition among the allies to taking on the Serbs.
- The British, for instance, are very reluctant. They say the US NATO shouldn't, uh, shouldn't become a belligerent in that war.
- More UN peacekeepers are becoming hostages in Bosnia.
- Serbs are threatening to use them as human shields in some safe zones."

뉴스 3:

- Tears filled Susan Smith's eyes during opening statements in her trial today.
- A prosecutor said, Smith quote "looked this country in the eye and lied about killing her two sons saying they had become obstacles to a love affair."
- The defense lawyer for Smith said that his case would be based on her mental state.
- Today's proceedings were cut short by a telephoned bomb threat.
- The courthouse in Union, South Carolina was evacuated briefly, but no bomb was found. Court will resume tomorrow.

부록 2

두 번째 연구에 사용된 36개의 청해문항

1. 첫 번째 뉴스

- 1) 제목:
- 2) 뉴스 전반부의 내용 정리:
- 3) 뉴스 후반부의 내용 정리:
- 4) 방금 들은 뉴스에 따르면, 누가 기내 금연에 찬성했습니까?
- 5)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 중 몇 %가 기내 금연에 찬성을 표시했습니까?
- 6) 설문 조사를 행한 곳은 어느 기관입니까?
- 7)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금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시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 8) US, Canada, 그리고 Australia 이 세 나라는 왜 언급을 했습니까?

- 9) 언제 이후로 미국 캐나다 호주를 왕래하는 기내에 흡연이 금지되었습니까?
- 10) 내년 7월 1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11) 위의 7월 1일 deadline을 발표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2. 두 번째 뉴스

- 1) 제목:
- 2) 도입부 요약:
- 3) 전반부 뉴스 내용 요약:
- 4) 후반부 뉴스 내용 요약:
- 5) 뉴스 도입부에 따르면, US와 유럽동맹국 (European allies)이 함께 해낸 일은 무엇인가?
- 6) 보스니아 뉴스를 전달하는 자의 이름과 직업은 무엇인가?
- 7) US와 동맹국이 많은 air strike를 감행하다가 어떤 일 이후로 폭격의 정도를 낮추었나?
- 8) 보도원이 보고한 considerable opposition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반대인가?
- 9) 동맹국 중 예로 든 나라는 어디인가?
- 10) 보도원이 보고한 영국의 입장을 무엇인가?
- 11) 이 뉴스에서 말하는 인질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 12) 세르비아 인들은 인질을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나?

3. 세 번째 뉴스.

- 1) 제목:
- 2) 전반부 뉴스 요약:
- 3) 후반부 뉴스 요약:
- 4) 첫 문장에서 보고된 피고인의 모습은?
- 5) 피고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피고인의 어떤 범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나?
- 7) 두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 8) 피고인 변호사가 참작해달라고 한 부분은 무엇인가?
- 9) 법정에 어떤 협박이 있었나?
- 10) 그 협박으로 인해 재판은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했었나?
- 11) 그 협박으로 인해 범정은 어떻게 되었나?
- 12) 재판이 열린 곳은 어디인가?
- 13) 언제 재판은 다시 열릴 것인가?